

대성전선(주)

국내 전선 업계 최초 아프리카 진출

大成電線(대표 梁始伯)이 탄자니아 국영전선회사인 TCL社를 지난 7월 11일 본격 인수, 국내 동종업계로는 최초로 아프리카에 진출했다.

탄자니아 현지 PSRC(민영화추진위원회)에서 있는 인수 계약식을 통해 梁始伯사장은 TCL사 지분 270만달러 가운데 대성전선이 51%(137만 3천달러)를 확보, 경영권을 넘겨받고 TDFL(탄자니아 개발 금융회사) 24%, 탄자니아 정부 15%, TANESCO(탄자니아 전력청)가 10%의 지분을 취득했다고 알려졌다.

TCL사는 탄자니아 국영 중·저압류 전력케이블공장으로 현재 동량기준 월 2백톤 규모의 생산능력을 갖추고 있으나 대성측은 이번 인수로 향후 7년내에 1250만달러를 신규 투자, 특고압케이블 및 통신케이블도 추가 생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성측은 이와 함께 이같은 진출은 탄자니아 다루셀렘항구가 우간다, 짐바브웨, 모잠비크, 자이레 등 주변국 중심에 있어 아프리카 시장 점유에도 유리할 것으로 내다봤다.

梁사장은 TCL사 투자 배경에 대해 「이 나라는 韓國에 비해 국토는 10배나 크지만 전력량은 5분의 1수준으로 인구 4천만 중에 8%만이 전기 혜택을

받고 있고 통신망은 더욱 형편 없고 밝히고 탄자니아 전력청 등 당사국의 강력한 협조가 뒷받침되고 있는 입장이어서 수요공급은 밝은 편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대성전선은 이번 탄자니아 진출로 베트남, 중국 등 사회주의 국가에 네 번째 현지법인을 설립하는 기록을 남겼다.

한전기공(주)

연구개발투자 대폭 확대

한 전기공은 올해 매출목표를 3600억원으로 설정, 각종 수주지원방안을 수립, 강화하고 기술개발 촉진을 위한 연구체제를 개편한다.

지난 7월 26일 한전기공에 따르면 국내 경기침체로 임금 및 경상경비가 작년수준으로 동결되는 등 대내외 기업 환경이 크게 어려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매출목표를 지난 해보다 26% 늘어난 3600억원으로 계획하고 각종 수주 지원방안을 강구 적극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사업소의 공사비 자율운영 폭을 확대시키기로 하였으며 기술개발 체제를 본사중심의 연구가 아닌 사업소 참여가 확대될 수 있는 연구체제로 전환시키며 특히 연구개발 과제에 대한 투자도 지난 해보다 10배 이상 확대한다.

한전기공은 이를 촉진키 위해 직원들의 복지시설의 질을 가용재원을 총동원

하여 단계적으로 시설 현대화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며 중앙연수원과 수도권 유학자녀 기숙시설 등의 문제는 별도재원 마련을 통해 추진한다.

LG전선(주)

非金屬 자기지지형 광케이블 개발

LG 전선(대표 權炆久)은 최근 국내에서 처음으로 초고속 정보통신망용으로 적합한 비금속 자기지지형(ADSS: All Dielectric Self Supportable) 광케이블 개발에 성공했다.

非金屬 자기지지형 광케이블은 별도의 지지선 없이 전주에 곧바로 설치할 수 있는 架空用 광케이블로 기존 케이블에 비해 포설과 설치가 용이하고 관로 사정이 열악한 우리나라 사정에 적합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 케이블은 또 기존의 금속 재질 대신 고강도 섬유를 사용해 가볍고 인장력이 뛰어나 일반 전주는 물론 장구간 초고압 송전 철탑에도 별도의 지지선(메신저와이어) 없이 설치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지난 7월 28일 정보통신부가 확정된 초고속 국가망 구축 2단계 사업계획에 따르면 2010년까지 전국의 모든 건축물과 주거 지역까지 광케이블망으로 연결할 계획이어서 가공용 광케이블의 수요는 급격히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전화망의 경우 광케이블화가 시

의 구간은 100% 이루어졌지만 시내 구간은 30%, 가입자망은 1%대에 머물고 있어 2002년까지 광케이블망을 중심으로 하는 기간전송망을 144개 지역으로 확대할 계획이어서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광케이블의 개발이 절실한 실정이었다.

LG전선은 비금속 자기지지형 가공용 광케이블에 대해 초고압 전력케이블과의 간접시험 및 신뢰도 테스트가 끝나는 대로 이 달부터 국내 및 해외 시장에 본격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한편, LG電線은 국내 최소형인 0.5mm피치 초소형 커넥터를 국내에서 처음으로 개발하고 양산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LG전선이 6개월 동안 10억원을 들여 개발에 성공한 초소형 커넥터는 0.5mm 기판대 기판 연결용으로 리본형 컨택트 구조를 채택해 접촉특성이 우수하고 액정 폴리머를 재료로 사용해 절연성과 전기적 특성이 뛰어난 것이 특징이다.

이 커넥터는 또 기존 커넥터의 최소형인 1.0mm를 반으로 줄이고 다양한 규격으로 휴대폰이나 노트북PC, 캠코더 등 휴대용 전자기기의 소형화와 경량화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이 커넥터는 "제품의 포장 방법을 개선해 자동화 실장(장착)이 가능하고 실장 크기의 제약을 해소시켜 회로 설계 시간을 절약하는 등 여러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LG전선은 0.5mm피치 초소형 커넥터를 개발함으로써 국내 휴대용 정보통신기기의 크기와 무게를 대폭 줄일 수

있고 연간 300만달러 이상의 수입대체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대중공업(주) 태안火電 터빈발전기 수주

현 대중공업이 한전이 발주한 태안 화력발전소 5, 6호기 공사의 터빈발전기를 600억원에 수주기로 정식 계약했다.

이에 따라 현대중공업은 오는 '98년부터 2000년까지 500MW급 터빈발전기 2기를 제작하여 공급하게 된다. 태안화력발전소 5, 6호기는 500MW급 한국형 표준발전소로 올 11월에 착공해 2001년 8월에 완공될 예정이다.

지난 3월 입찰에 부쳐졌던 이 공사는 지난해 발전설비시장 일원화조치 해제 이후 민간기업이 정부발전공사를 수주한 최초의 대형발전설비다. 현대중공업은 이번에 한국중공업과 치열한 경쟁 끝에 공사를 수주함으로써 국내외 발전설비시장에 본격 진출하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

현대중공업은 "이번 수주는 그동안 발전기분야에 꾸준히 투자해 온 것이 결실을 맺은 결과"라고 말했다. 현대중공업은 지난해 11월 총 3500억원을 투자해 연간 3,000MW의 스팀터빈·가스터빈과 4,000MW의 발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발전설비공장을 완공, 가동중에 있다.

이 공장은 4만 3000평의 설비규모에

최첨단시험설비, 가공설비 등을 갖추고 있어 발전설비분야에 있어 GE, ABB, 지멘스, 미쓰비시 등 선진업체와 대등한 경쟁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 지난 '94년 미국의 웨스팅하우스사와 기술제휴해 50~1,300MW급 스팀터빈발전기와 50~160MW급 가스터빈발전기 분야에 걸쳐 핵심기술을 전수받아 100% 국산화 기틀을 다졌다.

LG산전(주) 기계식 주차설비 ISO 9001 인증 획득, 가정용 전자식 전력량계 국내 최초 개발

LG 산전(대표 李鍾秀)이 국내 최고 권위의 ISO 인증 기관인 한국 품질인증센터(KSA-QA)로부터 기계식 주차설비에 대한 ISO 9001 인증을 획득했다.

이번 인증 획득을 위해 LG산전은 지난해 10월 Kickoff 미팅을 시작으로, 주차설비 사업유닛(유닛장 李忠遠 이사) 주관하에 분야별로 실무 요원과 품질감사 요원을 선발하고 수차례에 걸쳐 자체 평가를 실시하는 등 품질관리시스템 구축에 최선을 다해 왔다.

LG산전은 이번 ISO 9001 인증 획득을 기반으로, 국내 최고의 기계식 주차설비 제조업체로서 완벽한 품질관리체제와 고객만족 서비스 체제를 갖춰, 국내 자동차 1000만 대 보유에 따른

심각한 주차난 해결에 노력함은 물론 향후에는 중국과 동남아 시장까지 주차 설비를 수출할 계획이다.

한편, LG産電은 3년간 5억원을 투입, 국내 업계에선 처음으로 일반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전자식 전력량계(모델명 : LGRW12-10)를 개발하고 공립기술품질원의 형식승인을 취득했다고 발표했다.

이 제품은 사용 전력량을 A, B 2개의 시간대별로 나누어 계량할 수 있어 시간대별 차등 요금을 부과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통신 기능과 펄스 출력 기능이 있어 원격 검침도 가능하다. 또한 기존의 기계식 계량기가 단순히 현재 사용량만을 알려 주는 데 비해 LG산전의 전자식 전력량계는 측정된 계량값을 자체 저장할 수 있어 전용 LCD 표시 장치를 통해 전체 사용량, 전월(前月) 사용량, 시간대별 사용량 뿐만 아니라 날짜, 시간 등 다양한 정보를 순차적으로 표시해 주어 전기 사용량을 각 가정에서 입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번에 개발된 전자식 전력량계는 사용 전력량을 오차율 1.0% 이하로 특정할 수 있어 기계식 전력량계에 비해 2배 이상 정밀한 측정이 가능하다고 LG측이 밝혔다. 또한 제품 크기를 1/2 이하로 줄이고, 무게를 40% 절감한 콤팩트한 구조로 되어 있어 취급이 간편하며 설치 공간도 대폭 줄일 수 있다.

이 전자식 전력량계는 대형 공장이나 빌딩 등에 사용되는 산업용 제품의 경우 이미 국내·외에서 개발, 보급되고 있으나, 가정용의 경우에는 기술성, 경제성 등의 문제로 유럽이나 미국 등에서도 아

직 상용화되지 않은 첨단 제품이다.

LG산전의 이번 가정용 전자식 전력량계는 향후 1300만 가구에 달하는 가정용 전력량계 시장에서 기계식 전력량계를 대체할 차세대 제품으로, 올 연말부터 건설 시장을 중심으로 집중 공략할 예정이며, 한전 및 해외 시장에도 적극 진출할 계획으로 있다.

또한 LG산전은 최근 美 HEC社와 에너지절약 건설팅 분야에 대한 기술협력 계약을 체결했다.

HEC社와의 건설팅 분야 기술협력은 지난 해 6월 에너지절약 사업에 참여한 LG산전이 올 하반기부터 업체간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되는 에너지절약 시장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다.

양사는 이번 계약에서 아직 초보 수준에 머물러 있는 국내 에너지절약사업의 발전을 위해 ▲에너지절약 전문기술 및 노하우의 이전 ▲국내외 대형 프로젝트의 공동 참여 ▲사업영역의 확대 등에 있어 서로 협력하기로 했다.

현재 HEC社는 미국내 300여 개의 에너지절약 전문기업 중 종합병원 등과 같은 대형빌딩 분야에 높은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선두업체이다.

LG산전은 HEC社의 이런 강점을 이용, 우선 첨단 진단 기법이 필요한 에너지 다소비 산업체 시설과 대형빌딩 등을 공략할 방침으로, 진단뿐만 아니라 분석, 에너지절약 프로그램 개발, 사후관리 등 에너지 절약 사업의 전 과정에 걸쳐 최고의 서비스를 국내 고객에게 제공할 방침이다.

LG산전은 자체 생산하고 있는 인버터, 전자식안정기, 최대수요전력감시장

치 등 에너지 관련 고효율기기의 기술력과 경험에서 경쟁업체보다 상대적 우위를 확보하고 있는데, 이번 HEC社와의 기술협력으로 에너지절약 건설팅 분야에서 최고 수준의 기술을 확보하게 되어 올해 매출 목표인 50억원을 무난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향후에는 현재 5명으로 구성된 에너지절약 사업추진팀을 확대하고, 기술개발 활동을 강화하여, 약 1600억원 정도로 시장이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2천년에 500억원의 매출을 달성, 국내 선두업체로의 도약과 이를 기반으로 해외진출도 적극 모색할 계획이다.

대한전기학회(주)

「전기학회 50년사」 발간

大 韓電氣學會(회장 변승봉)가 창립 50주년 사업의 일환으로 최근 「전기학회 50년사」를 발간했다.

이번에 발간된 「전기학회 50년사」는 학회 창립에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학회를 비롯한 전기계의 지나는 발자취를 기록함으로써 앞으로 학회는 물론 전기계 관계자들에게 유익한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전기학회 50년사」에는 ▲한국전기 100년 개관 ▲학회 50년사 개관 ▲정관·기구·임원 ▲총무·행정 ▲학술·연구 ▲사업활동 등의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